

정언명법, 도덕 원리에 대한 능동적 명령

불교로 읽는 古典

서양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최인숙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 글의 목표는 서양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주요 저서를 불교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데 있다. 그런데 칸트의 책 속의 내용만을 여기에서 서술하는 것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철학에 입문했으며, 왜 하필이면 칸트를 공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서술하고자 한다.

철학에 대한 나의 관심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초반부터 나는 심정에서 뿐 아니라 생각에서도 우울했던 것 같다. 생각이 우울하다는 말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다든지 또는 앞으로 좋은 직업을 택해서 사회적 지위에서나 경제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지지하고 있는 '역설적 힘'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의 삶에 대해 극도의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열정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과정에서 철학은 나의 열정의 목표가 되었다. 나의 삶의 끈을 어떻게 해 풀 최소한의 유혹의 근거를 철학에서 보았다.

내가 칸트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일면 계산적인 것이었다. 대학 졸업식 날, 나는 친지들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바로 소피아서점(당시에 독일어로 쓰인 책을 파는 서점으로서 명동에 있었다)으로 달려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출판사)>를 샀으며 지금도 이 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독해하기에 나의 독일어 실력은 턱없이 못 미쳤다. 앞서서부터 몇 쪽 읽다가 중단하기를 몇 번이었다. 독일어 실력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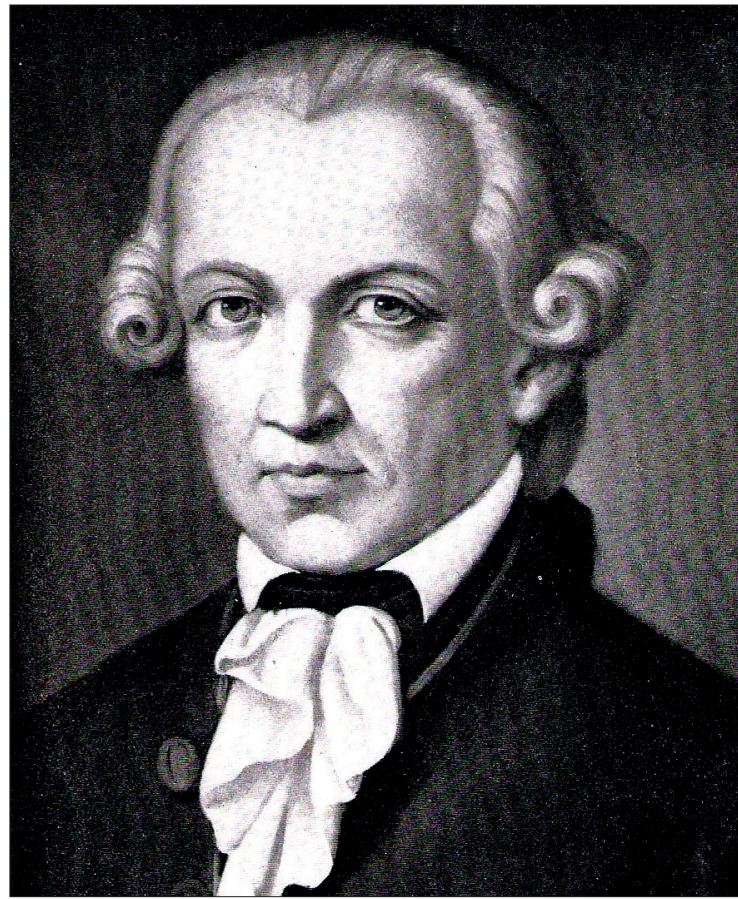
점점 향상되었지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이해하기에는 독일 도착 이후에도 여전히 미진했다. 칸트철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은 독일에 가기 전 훨씬 이전에 정해졌다. 왜 칸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니까! 단지 그런 생각에서? 조금 자세히 말해보자면,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칸트의 책들이 다른 책들보다 어려울 것이지만, 이왕 독일에서 공부한다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독일에서 철학 공부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철학 전공에서 칸트 내지 칸트 관련 수업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 나의 지도교수 또한 칸트 연구자 J. Kopper로서 매우 유명한 편에 속하는 학자였는데, 나는 그의 수업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것 같다. 칸트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칸트주의자'가 되었다. '칸트주의자'가 되어가면서 나는 자연 및 존재를 칸트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자연 및 존재에 관해 '칸트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칸트는 그 이전의 철학자들에서 매우 중요한 '실체' 개념에 대해 반론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세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현상' 뿐이다. 현상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표상이다. 자연에 관해 우리가 아무리 철학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표상을 통해 인식할 뿐이며, 우리의 표상은 사물 자체와 직접적 연결 끈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표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표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인식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필연적이고 선험적인 인식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나아가 지식의 보편성 및 객관성에도 관련한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멀리 나아가도 결국 우리의 표상들의 연결 관계에 그치지만 이 연결 관계는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 구조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상들의 지식은 결코 임의적, 우연적 지식의 모음이 아니라고 칸트는 논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험적 인식 구조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감성 형식과 12개의 범주로 표현되는 사고 형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결국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가? 주관의 형식이 아무리 선험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해도 이 형식이 사물 자체, 대상 자체에 직접 관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많은 이들은 이미 <순수이성비판>이 출판된 직후부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칸트 자신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제2판의 <순수이성비판>에서 특히 '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의 모습. 비판 철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칸트는 대표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종래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의 성립 문제와 참된 의식, 그리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한다.

칸트는 실체 개념에 대해 반론

현상은 사물 아닌 우리의 표상

연기적 존재 인간은 '도덕법칙'을

스스로에 명령·준수할 의무 있어

"철학,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게 해"

념론 반박'이라는 부분에서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1판에서부터 우리의 인식의 형식이 어떻게 선험적, 필연적, 보편적, 객관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가를 논증하는 것은 칸트 자신의 주요 목표였다.

칸트가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는 시기 이후 칸트는 전통적 서양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실체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 다른 길은 특히 <순수이성비판>에서 정립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1781)의 머리말에서 미래에 새로운 형이상학, 즉 '자연형이상학'을 정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및 존재에 대한 칸트의 철학 외에 나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전적으로 받아들

법칙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한, 사실 '우리는 왜 도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칸트가 '절대적 도덕법칙'이라 할 때 이것은 절대적, 신적 존재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 각자가 자신을 절대적 도덕법칙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에게 언제나 '절대적 도덕법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며 살아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남들도 모두 절대적 도덕적 존재로 인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을 우리는 인간 자체, 절대적 목적 자체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에도 해당한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칸트는 나 자신이나 남들 모두를 오로지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이 도덕법칙에 타당한 태도로 보았다. 이것은 오늘날도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 세상에 남들의 수단으로 살고 싶은 이가 있는가? 그렇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도 인간을 인간 자체로서보다는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남들에 의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커다란 배반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타자를 수단으

로 삼은 데서 기인하며, 남들을 인간 자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1785)와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1788)을 통해서 자신의 도덕철학의 토대를 논하고 있다.

칸트의 도덕철학은 오늘날에도, 아니,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삶의 원리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근거로 이것이 도덕원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칸트의 도덕원리를 근본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비겁해서 또는 이기심이 앞서서 이 원리를 준수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 도덕원리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준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도덕원리의 '타당성'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실정법도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상 자기의 손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위반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정법도 수시로 어긴다. 칸트의 도덕법칙의 경우, 사람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을 뿐이다. 우리는 현실적 입법 체계로서의 실정법을 왜 만드는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칸트의 도덕법칙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단지,功利주의적 계산에 그치지 않고,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대의 바람직한 인간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칸트의 도덕법칙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다.

나는 앞에서 독일 체류 5~6년 지나 칸트 철학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칸트 철학의 배경에는 여전히 절대적 신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칸트의 도덕철학의 배경에는 신의 존재와의 유비관계에서 인간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 비판기 이후의 칸트의 철학 체계 안에는 절대적 신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의 사고의 배경에서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었다. 칸트 자신이 살고 있던 전통적 기독교 사회의 배경을 완전히 떠나서는 칸트도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자연 '외에' 다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 자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나는 칸트의 현상론을 받아들여, 현상 '배후'의 실체를 '가정' 및 '요청'조차 하지 않는다. 현상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칸트의 정언명법으로서의 도덕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 원리를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인간의 격(格)을 지니고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요청' 할 뿐, 이 세계 외에 다른 존재는 전혀 '요청'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의 과정에서 나는 불교의 존재론과 칸트의 현상론, 그리고 불교의 도덕원리와 칸트의 도덕원리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인연의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도 실체적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체 개념과의 관계에서는 칸트보다 불교의 존재론이 더 철저하다. 칸트 철학의 배경에는 실체, 물자체 개념이 남아 있지만,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실체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오로지 우리의 표상으로서, 우리의 현상으로서만 존재할 뿐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니다. 불교의 도덕원리는 불교의 연기의 존재론에 따라 수미일관하게 생각할 수 있다. 연기의 논리는 모든 인간에 수평적으로 적용되는 이치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칸트의 정언명법으로서의 도덕원리를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내가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현대 사회의 폭력과 패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연기의 존재론을 나는 근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이것은 인간 사회의 실천적 행위의 변혁, 나아가 사회 변혁과의 관계에서 볼 때 자칫 수동적, 운명적인 것으로 곡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연관에서 나는 칸트의 정언명법(定言命法)의 의미를 중시한다. '연기'의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함께 살아갈 도덕 원리를 우리 각자에게 시사각각 능동적으로 명령함으로써 우리는 사회를 변혁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혁' 없이 '연기'의 진리만 되뇌인다면 이것 또한 허무감, 좌절감, 절망감만 낳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의 크기를 키우는 욕망의 공부를 지양하고, 자기 자신을 아니라 현재의 사회를 '변혁' 할 것을 '연대' 하려는 '결단'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생겨나와 현재 살고 있으며 숨이 멈출 때까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내 주변에 살고 있다. 서로 간의 인연 관계에서 성립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특히 지식인의 의무이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에서 나는 칸트철학과 불교를 매우 '잘도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여, 지금은 이 양자를 종합하여 어떻게 하나의 '실질적' 이론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허무감에서 시작된 철학 공부가 현재까지 나의 삶의 '역설적 힘'이 되었다. 철학은 단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데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진정한 '힘'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창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해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촉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CD08-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악왕보살본사(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보발공덕품(23:31)	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달품(22:19)	제18, 수희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리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정영왕본사(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